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녹두장군 마지막 길

‘겨울잠, 봄꿈’
한승원 지음



몸은 작았지만 녹두처럼 야무졌다. 훗날 동학농민전쟁을 이끌었고 교수형을 당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녹두장군이라고 불렀다. 전봉준. 그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던 주인공이다. 민중의 손으로 새 나라를 세우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지만, 불행히도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내년은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지 120주년이 되는 해다. 1894년 갑오년 4월 전봉준은 농민군을 이끌고 전주성을 점령했다. 그러나 우급처에서 일본군에 대패하고, 이후 부하의 밀고로 붙잡힌다.

작가 한승원이 전봉준의 죽음을 다룬 장편 ‘겨울잠, 봄꿈’을 펴냈다. 소설은 1894년 겨울부터 이듬해인 1895년 봄까지 전봉준이 붙잡혀 한양으로 끌려가 죽음을 맞는 과정을 따라간다. 집요하다 싶을 만큼 작가의 눈은 전봉준의 압송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설의 첫장부터 그려진 ‘폐장’ 전봉준의 모습은 무참하다. 부러진 다리, 몸은 뒤틀리고 옷 속에는 이가 가득하다. 속 시원히 배변할 수 없는 고통과 백성에게서 빼앗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고문의 식사’는 그를 육한다. 여기에 부하의 배신은 전봉준의 내면에 깊은 상흔을 드리운다. 10만 대군을 이끌던 영웅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다. 죽음을 목전에 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과 고뇌한 것을 뿐이다.

전봉준을 잡은 일본은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장차 조선을 지배하는 데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일본에 협력한 다음 미국 유학을 다녀와 조선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라”고 회유한다.

소설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양자로 나오는 이토 겐지(조선 이름 천종관)는 전봉준을 회유하는 핵심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조선에서 죄를 짓고 일본으로 도망가 이토 히로부미의 신임을 얻는다. 동학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에 잠입, 전봉준을 회유해 일본으로 데려갈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전봉준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혀를 깨물고 자결하는 대신 살아서 한양에 달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오로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다. “나를 죽이되, 종로 내거리 한복판에서 참수하라. 나의 피가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번져가게 하라.”

전봉준의 내면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뇌로 가득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변화의 단초로 이어질 기원했다.

한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한양으로 끌려가는 천 리 길의 기나긴 참담한 여정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전봉준이 만난 개 같은 세상을 보면서 나는 진저리치며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고 썼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의를 잃지 않은 전봉준. 그는 시대를 넘어 민초들의 가슴에 여전히 ‘영웅’으로 살아 있다. 압송되는 수레 밖으로 비쳐던 형형한 눈빛을 사람들은 기억한다.

“눈 내리는 만경 들 건너가네/ 해진 쏘인에 상투 하나 떴가네/ 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가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꾸네” (안도현 ‘서유록 가는 전봉준’ 중) <비치·1만2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세종대왕은 복지대왕, 출산휴가 100일

‘조선의 속사정’
권우현 지음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로 대중들에게 새롭게 조명된 세종대왕은 당시 여성들에게 출산휴가를 100일이나 주었다. 출산 전에도 한 달의 휴가를 주었고, 남편에게도 30일이라는 휴가를 주었다. 그야말로 ‘복지대왕’이라 칭하기에 손색이 없다.

조선시대에도 만우절이 있었다면 놀랍지 않은가. 오늘날처럼 4월이 아닌 첫 눈이 내리는 날이 거짓말을 하는 날이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의 진

정한 뒷담화를 다룬 책 ‘알고 보면 지금과 비슷한, 조선의 속사정’.

저자 권우현은 역사 특히 생활사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다. 그리고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이글루스에서 블로그를 시작해 이글루스 TOP100이 생긴 이후 6년 연속 100대 블로그에 들고 있다.

저자의 블로그 포스트 중 조선시대만 쪼르르 모아 책으로 펴냈다. 역사공부가 아닌, 생활속의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원고지와 만년필·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소하면서도 소중한 도쿄이야기

‘도쿄 산책자’
강상중 지음



제일교포 2세인 강상중 씨가 구인 대학 교수는 ‘고민하는 힘’,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국내 독자들을 사로잡은 저자다.

그가 이번에는 도시의 이곳 저곳을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낸 책을 펴냈다. 그가 탐색한 곳은 도쿄. 그는 ‘도시 인문 에세이-도쿄 산책자’를 통해 도쿄의 각 장소들이 간직한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저자는 메이저 신공, 국회의사당, 아카하바라 등 일본을 대표하는 곳 뿐 아니라 사넬 긴자점, 고양이 카페, 포시즌스 호텔 등 다소 사소한 공간들을 방문, 그곳이 갖는 의미도 들려준다.

그밖에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의 흔적을 좇고, 톳뽕기에 자리한 국립신미술관, 진보초의 고서점 등 모두 서툰 곳을 찾아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시계절·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가들은 멜랑콜리를 예술로 정면 돌파한다

‘응답하지 않는 세상을...’
이연식 지음



‘멜랑콜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의 일종으로 우울 또는 비애에 해당하는 것’이다. 삶과 세계의 불확실함에 대한 감정으로 응답하지 않는 세상과의 불화, 좌절, 대립없는 세계 앞에서 느끼는 절망에 기인한 우울함이다. 하지만 멜랑콜리는 단지 우울한 감정만은 아니다. 화가들에게는 창조성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미술사자인 이연식씨가 ‘응답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면, 멜랑콜리’를 펴냈다. 통찰과 영감을 얻으려는 예술가들이 멜랑콜리에 주목했다면 이 책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이런 감정이 왜, 언제,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를 파고들었다.

저자는 특별히 일곱 명의 작가에 집중했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농민화가로 알려진 피터 브뤼헬, 전형적인 멜랑콜리 커 에드가 드가, 외로움으로 평생 상상의 세계를 꿈꾸었던 오딜롱 르동, 고흐, 밤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 그리고 앤디 워홀의 작품에 드러난 멜랑콜리를 살펴본다.

“예술가들은 우리가 피하려는 감정을 예술로 정면 돌파한다.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 이유다.” 좋은 것만 선택해 그것만이 나의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날 것을 권하는 책이다. 예술가들이 멜랑콜리를 대면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에게 남긴 것처럼. <이봄·1만5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간

▲거짓에 관한 진실=모두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시대에 거짓에 대한 이유 있는 항변을 대신하는 책이 출간됐다. ‘독일어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볼프 슈나이더는 특유의 독창적인 시선과 냉소적인 어법으로 우리에게 착오가 필요한 이유와 우리가 거짓을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거짓으로 가득 찬 다채로운 세상속에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을문문화사·1만4000원>



▲로마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이 책은 로마 탐구의 연장선에서 한국인 저자가, 서구문화의 어머니로 불리며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로마정신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와 어떻게 소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국인의 정서와 시각으로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맛깔나게 담아낸 로마사 에세이다. <생각나눔·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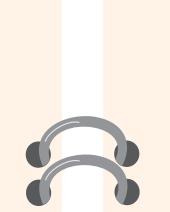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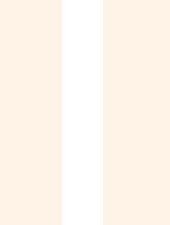
▲왕과 아들-조선시대 왕위 계승사=“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처럼 한 나라 왕이 되기 어렵고, 아들과 친한 아버지 되기는 더 어렵다. 강문식, 한명기, 신병주 세 저자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해 낸 조선시대 왕위 계승사를 다뤘다. 다섯 부자 관계를 통해 왕이라는 권력이 어떻게 유지, 계승되었는지, 왕세자와 왕후, 관료들과 정세, 주변국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역사적으로 구성했다. <책과함께·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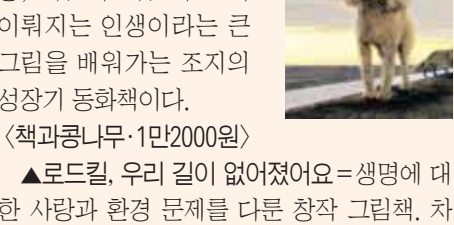
▲로스쿨은 끝났다=2018년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로스쿨의 현실은 어떻게? 세계적인 법학자이자 명문 로스쿨 교수인 브라이언 타마나하는 책을 통해 ‘로스쿨 황금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동료 교수들과 로스쿨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추악한 법조계 현실을 까발린 그의 통렬한 내부 고발에 미국 엘리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래인·1만5000원>

▲타블로이드 전쟁=1987년 6월, 뉴욕 곳곳에서 시체 토막이 발견된다. 토막 시체들은 모두 한 사람의 것으로 관영이 나고, 머리가 없는 시신의 주인을 찾는 데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다. 사건은 언뜻게 거물 조지프 폴라처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저자 폴 폴린스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을 재현해 한 편의 흥미진진한 법정 추리 소설 같은 책을 내놓았다. <양철북·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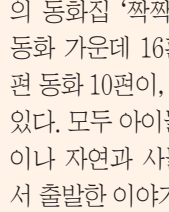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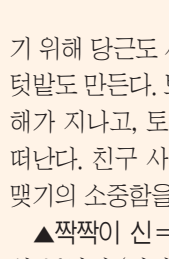
▲나홀=소설가 이현수의 세번째 장편소설이 출간됐다.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 밑에서 한국인 양민 300여 명이 사살되었다. 한국전쟁 중 벌어진 역사적 참극인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저자는 이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참혹함만으로 다루지 않고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문학동네·1만2000원>



▲거짓말쟁이와 스파이=미스터리한 인물인 ‘미스터 엑스’를 추적하는 두 스파이, 특이한 이름을 지닌 소년 조지가 자칭 스파이이자 커피 마니아인 세이퍼라는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우정과 사랑, 지금과 지금이 모여 이뤄지는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배우는 조지의 성장기 동화책이다. <책과콩나무·1만2000원>



▲로드킬, 우리 길이 없어졌어요=생명에 대한 사랑과 환경 문제를 다룬 창작 그림책. 차 사고로 친구를 잃은 강아지, 친구 곁을 지키던 강아지에게 너구리가 다가온다. 너구리도 차 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혼자였다. 너구리의 가족들은 먹이를 구하려고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했다. 강아지와 너구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안전한 곳을 찾아 길을 떠나지만 어디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폰북·1만원>



안과 검진을 받고 왼쪽 눈이 약시라는 걸 알게 됐다. 약시 치료를 위해 잘 보이는 눈을 안대로 가리고 안경을 쓰고 지내야 한다. 제노는 친구들과 신나는 해적놀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다. <한울림스페이스·1만1000원>

▲최고 멋진 날=조용하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던 할아버지는 어느날 토끼 한마리를 만난다. 할아버지는 토끼와 친구가 되기 위해 당근도 사오고, 토끼집도 만들어 주고, 텃밭도 만든다. 토끼와 함께 한 지 어느덧 아홉해가 지나고, 토끼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곁을 떠난다. 친구 사귀기에 서툰 아이들에게 관계 맺기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해그림·1만원>

▲꼭꼭이 신=‘동요·동시의 아버지’ 윤석중의 동화집 ‘꼭꼭이 신’이 출간됐다. 윤석중의 동화 가운데 16편을 뽑아 엮었다. 1부에는 단편 동화 10편이, 2부에는 연작 동화 6편이 실려 있다. 모두 아이들이 겪을 법한 크고 작은 사건이나 자연과 사물에 대한 아이다운 상상력에서 출발한 이야기들이다. <한복스·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